

“유성기업 8년, 때리고, 해고하고, 고소·고발 1,200건”

노조파괴 유시영 회장 처벌 촉구 오체투지 ... 대화 시작 한 달, 실제 교섭 단 한 번 나와

금속노조가 11월 28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유시영 엄중 처벌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와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오체투지를 하며 노조파괴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끝내기 위해 유시영 회장과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44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상견례를 빼면 단지 한 차례 교섭에 나왔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유성기업 노조파괴 시작된 주간 연속 2교대제 요구는 8년이 지난 지금 보편근무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밤에 잠 좀 자는 소박한 요구에 대한 대가는 8년 동안 저지른 참혹한 노조파괴였다. 더는 죽이지 말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끝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사측 관리자에 관한 불상사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유성기업은 이번 일을 교섭 거부나 노조탄압의 빌미로 삼아서 안 된다. 유시영 회장은 진정한 자세로 교섭에 나오라”라고 촉구했다.

권오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투쟁사에서 “유성 자본 관리자가 맞자 경찰은 신속하게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유성기업 조합원들이 용역 강패



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자동차에 깔려 죽을 뻔했을 때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지 않았다”라며 경찰과 검찰이 여전히 자본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우리 요구는 8년 동안 노조파괴를 자행한 유시영을 처벌하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원영 지부장은 “유성기업에서 8년 동안 벌어진 노조탄압으로 조합원들은 심리상태와 가정은 파탄 났다. 맞다고 주장하는 김 아무개 사측 관리자는 1,200여 건이나 조합원 고소·고발을 주도하며 노조파괴에 앞장섰다”라고 규탄했다.

김성민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사무장은 유시영 회장의 꼼수를

꼬집었다. 김성민 사무장은 “유시영은 재판에서 불리하면 교섭하자고 해왔다. 그러면 법원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라며 재판을 연기했다”라고 비판했다.

김성민 사무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부당한 징계와 해고, 수년 동안 임금동결, 어용노조, 1,200건의 고소·고발, 한광호 동지 죽음을 모두 참아왔다. 더 어떻게 참아야 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록한 <유성기업 이야기>로 26회 전태일 문학상을 받은 ‘일곱째 별’ 님은 연대사를 통해 “총파업을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유성 노동자들을 보며 왜 저들은 일하고 싶어 하면서도 총파업 깃발을 들고 행진할 수밖에 없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라며 아프지 말고 투쟁하자고 격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상은 변호사는 “법원은 유독 유시영 재판만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파괴와 배임, 연차수당 미지급 등 유시영 회장이 자행한 범죄에 합당한 처벌은 법원의 의무이고 유성 노동자들에 대한 사죄”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과 정원영 충남지부장, 김정태 대전충북지부장, 유성기업 아산, 영동지회 상집간부들은 검찰과 법원에 유시영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벌였다.

“절절한 요구, 평등 사회 만드는 큰 울림 될 것”

서울지부 투쟁사업장 노동부·공정위 결의대회 ... 노동부, 부당전출, 부당해고, 위장폐업 눈감아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세종시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부당노동행위, 부당정리해고, 부당폐업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11월 28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서울지부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영프레이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노위의 판결은 상식에 불과하다”라며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일하고, 근로감독관이 제 역할을 했다면 신영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세종시 찬 바위에 앉았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노동부를 규탄했다.

노동부 앞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동했다.

박경선 노조 서울지부장은 대회를 시작하며 “11월 28일 지노위가 ‘신영프레이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라고 판정했다. 성진씨에스와 레이테크 노동자들은 합성과 박수로 내 일처럼 기뻐했다”라고 보고했다. 박경선 지부장은 “노동자들은 판정 전부터 누가 봐도 부당해고이니 노동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해왔다. 노동부가 해결했으면 서울 노동자들이 오늘 세종시까지 왔겠느냐”라고 분노했다.

동지들의 노조 가입 소식을 알렸다.

이필자 레이테크 수석대의원은 투쟁사에서 “10월 마이너스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임태수 사장은 비조합원만 월급을 준다 10개월째다”라며 “근로감독하면 뭐하니? 임태수 사장은 여전히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서다윗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현대자동차 쏘나타 카시트 커버를 만드는 성진씨에스와는 회사가 있었다. 현대자동차의 45차 하청업체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드니 바로 위 원천인 코오롱글로벌에서 물량을 주지 않아 폐업했다”라고 설명했다.

박경선 지부장은 “엘지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의 문을 두드리자 엘지전자는 직고용을 발표하고, 엘지전자노조는 가입원서를 돌리고 있다”라며 “지회 대표들이 공개로 11월 27일 노조 설립을 신고하니 엘지전자의 모 상무가 직접 나서서 지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해고 협박에도 꺾히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고 최근 엘지전자 서비스 노

정명희 성진씨에스 분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노동부가 부당전출 레이테크 부당정리해고 신영프레이션 노조결성에 폐업한 성진씨에스 사장들을 모아 ‘누가 더 잘났나’라는 대화를 열면 불만 할 것”이라며 “악질 사용자들이 처벌받고 노동자는 알지리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하자”라고 결의를 다졌다.

서다윗 지회장은 “성진씨에스의 물량을 빼서 다른 업체로 돌린 행위는 불공정행위이고 하도급법 위반이다”라며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똑바로 일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태 신영프레이션 분회장은 투쟁사에서 “신

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은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담벼락에 투쟁사업장 요구사항을 적은 손팻말과 현수막을 붙이고 걸고 결의대회를 마쳤다.

“현대중공업, 정보기관식 노무관리 뿌리 뽑아야”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규탄 국회 기자회견...노조 선거 개입, 등급 분류, 감금 등 저질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지부 선거에 개입하고, 조합원과 대의원을 사측과 친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관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대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견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고 불법노무관리를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활동, 경조사 지원에 개입하고 회사가 꺼리는 대의원에 대한 악선전을 벌이기도 했다.

금속노조와 김종훈 민주당 의원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1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노조 무력화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고 불법노무관리를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이 조합원 성향을 5단계로 나누고 사측 관리에 호의적인 상위 3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집중 관리했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대의원을 녹색, 황색, 청색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회사는 사측에 가까운 대의원 당선을 위해 후보선정부터

박근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자료에 나온 지난 3년을 넘어 이전에도 회사는 끊임 없이 대의원 선거 지배개입에 나섰다. 심지어 출마자를 감금한 적도 있다. 노조 말살을 노린 활동가 탄압도 자행했다”라며 “이번 기회에 부당개입을 끝장내는 과업을 벌이고,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